

잔 칼망의 장수 비결과 영생

기네스북에 최고령자로서 기록을 남겼던 잔 칼망(Jeanne Louise Calment)에 대한 흥미로운 보도가 최근 나왔다. 그녀는 122년하고도 몇 개월을 더 살았는데 담배를 피우는 그녀의 사진이 흡연자들에게 수명과 흡연은 아무 상관관계도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근거 아닌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사실 그녀는 젊은 시절 흡연을 하지 않다가 112세부터 흡연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애연가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부산일보 2023년 3월 1일지는 프랑스의 인구통계학자인 장 마리 로빈 박사가 CNBC 메이크잇을 통해 밝힌 칼망이 122세까지 산 비결에 대해 보도하였다. -122세까지 장수한 프랑스 할머니의 비결 3가지- "일단 돈이 많았다"에서 인용

로빈박사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우리 승리제단 신도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첫째, 로빈 박사는 우선 부유한 가정 환경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로빈 박사에 따르면 칼망은 프랑스 남부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유한 동네에서 살았으며, 칼망은 당시 여성으로서는 흔치 않게 16세까지 학교를 다녔고, 20세에 결혼할 때까지 요리, 미술 및 무용에 대한 개인 수업을 계속 받았다고 한다. 로빈 박사는 "그녀가 오래 살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데 도움이 된 요인은 일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녀는 항상 그녀를 도와줄 누군가가 집에 있었고 스스로 요리를 하거나 그녀의 필수품을 쇼핑할 필요도 없



나라는 의식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었다"고 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가 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이다.

승리제단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스트레스는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나라는 의식'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누가 자신을 욕할 때 '나라는 의식'이 살아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낀다. 하지만 '나라는 의식'이 없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다. 자신에게 욕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

서 그의 욕을 받아들이고 '나라는 의식'을 짓이기에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여기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로빈 박사는 두 번째 장수비결로 칼망이 젊은 시절 담배를 피우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녀는 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흡연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고 결혼 직후 남편으로부터 담배를 권유받았지만 거부한 후 평생 흡연을 하지 않다가 요양원에 살면서 약 112세부터 담배를 피웠다고 하니 말년 약 10년간 담배를 피웠던 것이다.

흡연이 건강에 최고로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모 종교단체에서는 영생을 한다면서 흡연과 음주를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죽음의 물질 을 마시면서 영생 운운하는 것은 모순 중

의 모순이다. 승리제단은 육체의 영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한다.

적극적인 사회생활

로빈 박사는 세 번째 장수비결로 칼망이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한 점을 꼽았다. 일을 하지 않았던 칼망은 자유시간이 넘쳤기 때문에 사교 행사에 참석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또 남편과도 자주 여행을 다니며 여가를 즐겼다고 한다.

사실 말년에 생기는 외로움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고독사 또한 사회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외로움과 허전함은 마음에 병을 불러온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교제가 꼭 건강에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승리제단의 율법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율법을 행하려면 반드시 희생생활이 요구된다. 만나는 사람들의 사정과 죄를 내 죄와 사정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희생을 통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게 된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구세주의 가르침이 빛나게 되어 있다. 자신의 생활이 구세주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

거하려고 하는지 알 도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불교계에서는 그래도 무아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무아를 이루려는 시도 역시 있어 왔다. 하지만, 불교계에서 무아를 이루었던 사람은 없었다.

본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

승리제단이란 이름은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를 제거하고 이김으로써 승리를 쟁취했다는 의미에서 승리제단이다. 그래서 승리제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려고 그리고 구원 받으려고 종교생활을 하지는 않는다. 불멸의 신을 모시고서 그 신이 본래면목(本來面目=original face)으로 이해하고 살아간다. 이 불멸의 신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본인이 본래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적인 삶에 대해 피치 못할 자연의 이치니 뭐니 하면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다가 죽어간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신을 모시는 것이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죽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라고 말하고 싶다.* - 안준영 승사 페이스북에서 옮김 승리제단 시드니 지부 / 책임승사 당여(當如)

연락처 0415 727-001
e-mail : dap21b@gmail.com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3>

“짜이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짜이 맞지 않는 것은 마귀 소리인 것이다. 짜이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쓰여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하나님이 흠을 빚어 아담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마귀의 소리요 또한 선악과를 따 먹었다고

해서 저주를 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도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고로 마귀 소리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혹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기를 하물며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아담과 해와를 저주하여 자손만대로 죽게 하였다면 이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소리인가?*

이기는 삶

윤형방황(輪形彷徨)

윤형방황(輪形彷徨)이란 심리학 용어로 눈을 가리고 걸거나 사방이 똑같은 사막과 같은 곳을 걷게 되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산속 혹은 사막 등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에게서 윤형방황은 종종 발생한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 50세의 등반가가 알프스 산지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마을을 찾기 위해 눈 속을 매일 12시간씩 걸었다. 그렇게 13일 뒤 사람들에게 구조가 됐는데, 그는 12시간씩 계속 걸었기에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가 구조된 곳은 길을 잃은 장소에서 불과 6km 반경 내였다.

누구나 눈을 가리고 오랜 시간을 걸어 가게 되면 굉장히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눈을 떠서 살펴보면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걷는 방법은 젠걸음으로 더듬더듬 걷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길로 과감하게 성큼성큼 걷는 것이며 약 30보를 걷고 잠깐 멈추다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30보를 걷는 것이라고 한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눈이 가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빙글빙글 제자리 인생길을 맴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알 수 없고 인생의 끝은 어딘지도 알 수가 없다. 인생의 윤형방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소신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고 흉내를 내면서 따라가다가는 윤형방황을 면할 수 없다. 쓸데

없이 결눈질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든 내 앞만 바라보고 두박두박 걸어가야 한다. 길림길이 많으면 길을 잃기 쉽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도 가끔 멈춰 서서 걸어진 길을 되돌아보고 가야 할 길을 살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 쉽고 편한 길을 가게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걷지만 말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인생은 걷는 속도보다 가고자 하는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속 어디를 향해 열심히 걷는 것보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멈춤과 쉬, 성찰의 지혜가 필요하다.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길에 삶의 동반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짧은 듯해도 멀리 가는 것이 인생길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려는 말처럼 그 길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목표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음에 맞는 동반자는 삶에 큰 힘을 준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윤형방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딱히 손에 쥐 게 없다. 눈을 부릅뜨고 살았지만 눈을 감고 산 것처럼 주변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다.

인생이란 누구나 눈을 감고 걸어가는 윤형의 방황길이다. 그러기에 불안과 좌절, 허무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윤형방황을 끝내고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삶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고 끊임 없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하나의 희망이 사라지면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

과거,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기성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종교사상을 더 중요시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영타리 종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르네상스운동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은 크게 바뀌었다. 르네상스는 14-16세기에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 중심의 사상과 봉건 제도로 개인의 창조성을 억압하던 중세에서 벗어나, 문화의 절정기였던 고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문화·예술 분야 뿐 아니라 정치·과학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기법의 시도와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었다. 사실, 르네상스 문화의 근본정신은 인본주의, 즉 휴머니즘(humanism)이다. 그리스·로마의 고전에서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뜻하는 후마니오라(humaniora)에서 시작된 말로, 인간이 지니는 기치, 즉 인간의 창조성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사상을 의미하고 있다.

동방의 팡팡 팡 모퉁이가 되는 한반도에서도 인간 자체에 대한 존귀함을 내세우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동학운동이다. 어떤 사람들은 동학운동을 단순히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반란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동학운동에 대해 제대로 본 내용이 아니다. 동학운동의

핵심사상은 인문사상이다.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하나만으로도 존귀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학 운동의 핵심내용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동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다.

동학사상 계승 발전시키는 승리제단

승리제단이라는 단체는 동학의 근본사상을 계승하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단체다. 이러한 승리제단을 두고 많은 기성종교들은 사 이비라고 매도하여 승리제단이 더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물론, 기성종교에 심하게 물든 종교인들 말고도 종교를 지니지 않고 있는 일반인들도 입이 벌어질 만한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있기에 승리제단이 사이버라고 불리만하게는 하다. 사람의 몸이 살아서 불로불사, 즉 영생까지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입이 벌어져서 다물지 못한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다 제하고 보면 불로불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미미하고 실로 놀랄만한 진실의 세계는 무한대로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인간의 불로불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게 된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그 주장

이 너무도 앞선 초 진보적 주장이기에 사람들이 명해질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승리제단이 기성종교와 확연히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인데 수심(修身)의 방법도 세상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도 차이가 있다. 세상 종교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승리제단은 정 반대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그야말로 혈안이고, '자신'을 제거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신'을 제거하기에 노력을 경주' 한다. 기성종교에 물든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들어본다. 무당들은 각자 자신이 받들어 모시고 있는 신(神)이 있다. 그 신을 몸으로 받아들일 때 접신(接神) 혹은 빙의(憑依)라고 하는데 신이 몸 안에 들어와 좌정하여 있을 때 앞을 내다보는 점을 보거나 날선 작두날 위에 올라가서 널뎠듯 뛰어오래 발이 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치로 승리제단 사람들은 이긴자라는 불멸의 신을 받아들여서 기존 그 몸의 주인으로 좌정해 있던 '나라는 신'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즉, 극기(克己)하고자 시도하는 단체가 승리제단 이요, 무아(無我)를 이루려는 단체가 승리제단의 실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아'를 왜 이루려고 하는지, '나라는 존재'를 왜 제

진짜 구세주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구세주로 만드는 자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요절말씀이 나온다. 공관복음(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의 말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해당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공관복음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 자신이 그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한 번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라



고 말할 때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라는 제목의 책을, 인류를 전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 구세주가 되게 하는 길잡이이자 등반이 될 것이다.*